

2015.04.07.PM1:00 <다시 봄> 20차 회의 @총여실

참여:
불참:
지각:
속가: 예지-정윤-우틀-민경-가은

집행위원장	예지
재무국	가은, 건호
미디어홍보국	정윤, 가은
국제캠퍼스국	정윤
생활복지국	민경
정책국	예지, 우틀, (혜윤, 다현)

0. 생활나눔 & 체크

삶의 활력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 활동 보고 및 상황 공유

4월 1일 (수)

- [재무국] 1분기 결산보고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총여학생회실 앞에 게시했습니다.
- 학생신변보호 시스템 설명회 및 솔루션 시연 참석 신청했습니다.

4월 3일 (금)

- 성폭력 사건에 자문했습니다.
- 다시 봄 임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미디어홍보국] 건국대학교 학과통폐합을 반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했습니다.
- [미디어홍보국] 여학생 휴게실 물품에 붙일 라벨을 디자인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여학생에 휴게실 물품(스탠드, 멀티탭)을 구매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티켓 지원에 관련해 소통하였습니다.

4월 4일 (토)

- 총여학생회 신입 집행부원 맞이 내부 세미나 1회차 "지금 여기에서의 총여학생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 5일 (일)

- [미디어홍보국] 제4회 장애인권문화제 꾸밈단 모집 공고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했습니다.

4월 6일 (월)

- 성폭력 사건에 자문했습니다.
- 회장과 집행부가 성평등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 수업에서 총여학생회와 사업 소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 회장이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쿼어영화제와 지원 방법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4월 7일 (화)

- 다시 봄 제20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중운위 안전 공유

논의안건

1. <봄날의 RC를 좋아하세요?> 공청회 참여 요청 [첨부자료#1]

- 3주 동안 진행했던 <더 나은 국제캠퍼스를 디자인하다 RC그라피> 실천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공청회가 오후 18시 진리관A101호에서 진행됩니다.
- 중운위원분들의 참여와 단위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부탁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 1주기 도보행진 기획소개 및 참여 요청 [첨부자료#2]

- 약 10일 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표류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매듭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중운위원의 피드백을 요청드리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백양로 공사 현장 답사 및 의견 개진 자리 요청

- 백양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임시확대운영위원회에서 행정대외부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운위에서 시설처장, 행대부총장과 함께 백양로 공사 현장을 답사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중운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일정과 어떤 단위에서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4. 생협 대의원 비율 및 단위별 인원 의결 [첨부자료#3]

-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학부생 인원(30명)에 대한 대의원의 단위별 인원을 의결하고, 명단을 총학생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작년과 다르게 변경안을 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피드백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5. 제19주기 노수석 열사 추모제 특별활동지원금 요청 [첨부자료#4]

- 지난 회의에 이어 제19주기 노수석 열사 추모제 특별활동지원금 요청에 대한 발제를 진행합니다.

기타안건

1.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1년 단위 대의원 선정 논의

- 지난 회의에 이어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1년 단위 대의원 선정을 논의합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각 단위에서의 의사과 상황을 공유하고 1년 단위로 들어갈 4개의 단과대를 선정합니다.

3. 1학기 재실 시간표

	월	화	수	목
11:00-12:00	정윤, 예지	가은	예지	민경
12:00-13:00	정윤, 예지	가은	예지, 정윤	민경
13:00-14:00	예지	예지, 가은	예지	민경
14:00-15:00	예지	예지, 가은	예지	민경
15:00-16:00	혜윤, 우틀	예지, 가은	건호	우틀
16:00-17:00	혜윤, 우틀	예지, 가은	건호	우틀

4. 살림살이

- (1) 신촌 총여실
- 청소 분담

[첨부자료1]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학회 지원 및 네트워킹

사업명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학회 지원		
담당국	정책국	협력국	재무국 미디어홍보국
학내 관계부서	-		
진행날짜	~ 4월 2주 : 기획완료 중간고사 이후 : 홍보 및 모집 5월 초 : 심사 및 지원		
사업의도	- 학내 여성주의 토양 마련 -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네트워킹		
대상	- 학내 여성주의 모임		
홍보방향	- 여성주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낮은 느낌을 주면 좋을 듯. (페미니즘을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모임이 생기거나 기존 모임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지향한다면)		
진행내용	- 연세대학교의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모임들에 공간이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과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네트워킹을 시도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거나 서로 힘을 보탬 수 있게 독려합니다. -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나 일년동안 예정된 사업의 기획안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제공한 후 총여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필수적인 미팅을 진행합니다. - 혹은 지원금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공간을 제공합니다. (총여실 대여 ?) - 재정적/공간적 지원을 요건으로 꾸준한 네트워킹 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별도 기획 필요 * 총여실 대여 논의 필요 * 지원금 액수 논의 필요 * 심사기준? * 지원자격? (다른 학생회의 어용 모임 등이 받지 않도록, 사회과학 토론 모임이나 생태주의 모임 등도 허용할 것인지, 모임의 연세대학교 재학생 비율, 사업의 이후 지속가능성 등)		
예산	- 50만원?		
예상문제점	1. 여성주의 모임 없음 (문과대 엘리스, 참깨?) 2. 가짜 모임이나 적절하지 않은 모임에 지원 (= '페미니즘 모임' 경계 설정의 어려움) -> 신청이 들어온다면 심사단계에서 논의해봐도 좋을 듯 3. 지원금 먹튀 -> 지속적 미팅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첨부자료2] 예산안 수정

총 779만원 기준

국제캠퍼스국	정책국	생활복지국	미디어홍보국	기타
소통하는대자보 (10)	페미니러리 정비 (50)	여휴정비 (50)	여성주의 알리기 이벤트 (0)	운영비 (44)
	불편함 제보 시스템 (0)		SNS 관리 (0)	
	학내 여성주의 모임 지원 (50)	문화티켓 (50)		예비비 (100)
	장애인권문화제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50)	홍보자료 제작 (0)	
	9월문화제 (200)	단체복 (25)	배부대 (25)	매체발간 (150)
	성평등세미나 (25)			

[첨부자료 4]

이승민

2015년 4월 5일 오전 12:2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4/4일 토요일에 신중도에서 위험한 사람을 보았기에 염려가 되어 메세지 드립니다. 저는 신중도에서 여타 학우들과 스터디 중이었는데, 스터디원 중 한 명이 신중도 5층 세미나실 바깥에서 제 하반신을 찍는 것을 목격, 그 분을 잡아와 일단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치마를 입은 여학우들이 세미나실 안에서 다른 작업에 집중하느라 바깥에 신경을 못 쓴다는 점, 세미나 실 복도 쪽 유리가 투명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제 사진을 지울 때 그 분의 핸드폰을 본 결과 저만 찍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사진 이외의 사진을 보는 것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바로 옆 사진이 다른 여성의 피해사진인 것은 아니라 더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세미나실 역시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저만 있을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중도 5층 사서분께는 말씀 드리고 주의를 부탁드렸으나 그 사람이 신중도 이외에서도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단순히 인상착의만 물으셨기 때문에 대책이 부족할 것 같아 총여학생회에 연락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고 여학생들에게 이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주지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가르쳐주신 건지 가짜 정보를 댄 건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제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는 이름: 안일운 전화번호: 010-9022-8093 입니다. 저는 비록 경찰이 없어서 단순히 사과를 받고 위와 같은 정보를 건네받는데 그쳤지만, 다른 여학우들에게 같은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제 부탁을 들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 다시 봄

다시봄님이 보냄

2015년 4월 6일 오전 11:53

이승민 학우님 안녕하세요. 피해를 당해 놀라고 불쾌하셨을텐데도 침착히 잘 대처해주시고 저희에게도 연락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중앙도서관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는 성폭력은 우리대학교에서 종종 발생해오고 있고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다시 봄>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해 익명 게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종종 발생해왔음을 알리며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익명으로 게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1) 안일운이라는 이름이 본명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2) 본명이라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가해자가 공격받게 되어서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본래 의도를 전하는 것보다는 가해자를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사건이 흐를 수 있으며 3) 명예 훼손 고소 우려가 있으므로 익명 게시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건에 대해 익명으로 오픈라인에 대자보 형태로 게시 구중도 1층 입구, 신중도 1층 입구와 3층 입구, 학생회관, 총여학생회실 총 5군데 게시할까 합니다. 3) 성평등센터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 이 경우 신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해도, 제3자가 해도 상관없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름과 전화번호는 모두 센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상담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평등센터에서 신고해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학교를 통해 공식

적인 징계를 받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찰에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 마찬가지로 제3자가 신고해도 됩니다. 승민 학우님은 1,2를 원하고 제보해주신 것 같은데 3,4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와 4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처리되고 어느 정도의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성평등센터에 문의 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2015년 4월 6일 오후 12:01

신고 쪽에 대해서는 일단 신상정보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서 조심스러우며 제 생각에는 대자보가 가장 좋은 방법이되 한 번 더 발각시에는 협상의 여지 없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대자보에 포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